

췌 다섯, 비로소 시작하는 진짜 내 인생...서정희의 신나는 마이웨이

▶ 8면

방승인 서정희가 3년의 길고 고통했던 터널을 빠져나왔다. 예제이 '정희'에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쏟아내며 새로운 인생에 발을 내딛었다. 스포츠동아와 만난 서정희는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내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다.



서정희

우리들의 국민타자 이승엽, 15일 마지막 올스타전

별이 된 그대,
웃으며 너를 보낸다

경기전 팬·꿈나무 위한 단독 사인회
두 아들과 3부자가 시구·시타·시포
KBO 구본능 총재 헌정유니폼 선물
첫 출전한 대구서 의미있는 피날레



수많은 별들이 모인 '잔치'에서 가장 밝은 별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왔다. 동료, 가족, 그리고 이 별의 퇴장을 누구보다 아쉬워할 팬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라이언킹' 이영준. 전설의 11번째이자 현역 마지막 올스타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승엽은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017 타이거뱅크 KBO 올스타전에 드림올스타 지명타자로 출전한다. 팬과 현역 선수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그를 별들의 잔치로 이끌었다. 팬 투표(104만 3970표)와 선수단 투표(196표)를 종합한 결과, 총점 54.41점을 기록해 드림올스타전 포지션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KBO는 이승엽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올스타전이 열리기 직전인 15일 오후 이승엽의 단독 팬사인회를 연다. 야구팬들과 대구지역 청소년 야구 꿈나무들은 오후 3시50분부터 외야 지정된 장소에서 이승엽의 친필사인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가족들 또한 올스타전에 함께한다. 본 경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시구, 시타, 시포 행사에 이승엽과 두 아들이 참여한다. 첫째 아들 은혁(13세)군이 시구를 맡고, 둘째 아들 은준(7세)군이 타석에 들어선다. 이승엽은 홈플레이트 뒤에 앉아 은혁군의 공을 받는다.

이승엽의 올스타 헌정 유니폼 증정식도 열린다. KBO 구본능 총재가 직접 이승엽에게 올스타 헌정 유니폼을 전달할 계획이다.

마지막 올스타전을 대구에서 치른다는 것도 큰 행운이다. 이승엽은 1997년에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초대됐는데, 그해 올스타전은 대구시민구장에서 열렸다. 이후 이승엽은 9번이나 올스타전에 출전했지만 홈인 대구에서 올스타전에 입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대구에서는 2010년에도 올스타전이 열렸지만, 당시 이승엽은 일본리그에

서 뛰고 있어 출전기회가 없었다.

이토록 특별한 마지막 올스타전을 앞둔 이승엽의 마음은 어떻게. 13일 수월 kt전을 앞두고 만난 그는 “KBO에서 나와 팬들을 위해 여러 이벤트들 준비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 다른 여러 제안도 있었지만 고사했다. 올스타전은 ‘한국프로야구’를 위한 무대다. 한 선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 이상은 선을 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스타전의 시작과 끝을 대구에서 하지만 이번 올스타전이 갖는 의미가 나에게는 더 크다. 첫 출전 당시에는 그저 기쁘기만 했다. 지금은 나 스스로 느끼는 바가 더 깊다”고 덧붙였다.

이승엽은 팬들을 위한 특별한 다짐까지 밝혔다.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안타보다 홈런을 노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올스타전에서 내가 친 홈런은 3개 밖에 되지 않는다. 올스타전은 축제이고, 기록에 큰 부담이 없는 경기다. 팬들과 나 자신을 위해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안타보다 홈런을 노리겠다. 가능하면 플스윙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올스타전 관련기사 2면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
안타보다
폴스윙으로
힘런 치겠다

‘라이언킹’ 이승엽의 11번째이자 현역 마지막 올스타전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승엽은 “안타보다는 풀스윙으로 홈런을 노리겠다”고 약속했다.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백척간두 한국축구, 차두리 논란은 좀...

떠났던 차코치 대표팀 재합류 곱잡은 시선
월드컵본선행 위해 코칭스태프 힘 실어줘야

4개월여 만에 축구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다시 합류한 차두리(37) 코치의 행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대표팀 신태용(47) 감독은 12일 자신을 보좌할 코치진 구성을 마쳤다. 4일 대한축구협

회 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책을 맡은지 8일만이다. 전경준(44) 코치, 김남일(40) 코치, 김해운(44) 골키퍼 코치, 이재홍(34) 피지컬 코치와 함께 차 코치도 이름을 올렸다.

논란의 원인은 차 코치가 울리 슈틸리케(63·독일) 전 감독 밑에서 일하다 개인적 이유로 대표팀을 떠났던 전력 때문이다. 차 코치는 슈틸리케 전 감독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필요하다는 지지에

따라 전력분석관을 맡았다. A급 지도자 자격이 없어 명목상 전력분석관이었을 뿐, 실제로는 코치 역할이었다. 그러다 올해 3월 중국과 시리아를 상대로 한 2018시사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2연전을 마친 뒤 돌연 물러났다. 표면적으로는 지도자 자격증 획득이 이유였지만, 수필가로 전 겸직의 지도방식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란 해석도 나왔다. 5월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 이번에는 정식 코치로 합류했다.

차 코치의 '신태용호' 합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은 주로 “대표팀 코치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맡고 싶으면 맡는 자리인

7)"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신 감독은 "일주일간 내가 전화하고 쫓아다니며 설득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못 하겠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내 뜻을 받아줬다"며 "어렵게 결정해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2경기(8월 31일 이란전·9월 5일 우즈베키스탄전) 승리를 위해 차 코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독으로서 앞장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차 코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개인적 이유로 떠났다가 돌아온 차 코치의 처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순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행보를 따지고 논란을 키우기에는 한국축구의 현 상황이 그야말로 누란지계다. 차 코치에 대한 논란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일단은 원 코치스태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분명 일리가 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13일 "한국축구는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한 위기 상황"이라며 "신 감독의 선택과 차 코치의 용단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신 감독의 몫이었지만, 우선은 믿고 응원할 때라는 얘기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02277호(2017.05.23)


라이나생명
 cigna

개수의 부담을 줄인 보장! 든든한 보장금액!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욱 새롭게! 라이나생명(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개수 제한과 부족한 보장금액의
아쉬움을 덜어드릴
새로운 치아보험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나생명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
(프리미엄)**

NAVER 라이나생명다이렉트

- **개수 제한 없이! 재료구분 없이!** 때우는 충치치료 보장
 - 금, 도제(세라믹), 테세라 개강 13만원, 레진 등 개당 5만원, 아말감 개당 1만원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씹우는 크라운 치료 보장
 - 크라운 치료 20만원 (유치, 영구치 각각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도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보장**
 - 임플란트 70만원, 브릿지 35만원 / 틀니 연 1회 70만원(특약 가입 시)
 - 특약: 0세~55세 가입 가능, 가입나이 56세~70세 조계약만 가입 가능하며, 임플란트, 틀니는 50만원, 브릿지는 25만원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 영구치 발치 1개당,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틀니: 보철물량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영구치 발치 후 그 지어치로 치료 시 정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꾸준히 받아야 하는 소액치료는 더욱 새롭게!**
 - 개수 제한 없는 신경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잇몸치료 / 스케일링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충치나 잇몸치료 시 정액 보장
 - 잇몸질환치료 및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또는 의료급여항목에 한함

- 모든 보장 발보도 **만기지급금 50만원** 지급(만기 생존 시)
- **0세~70세까지 온가족 가입 가능**(특약은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예시표]

주계약	남자	여자
40세 기준	31,000원	26,200원
(무)보철치아보장특약비(프리미엄)	4,480원	2,780원
합계	35,480원	28,980원

* 기준: 가입금액 50만원, 4,500원 (무)보철치아보장특약비(프리미엄) 2,000원
 보험기간: 10년간, 납입기간: 영구한 월납, 주계약만(특약비)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주계약 0세~70세 / 특약 0세~55세 / 가입나이, 특약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 가능

[해지환급금 예시표]

계약기간	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25,760원	0원	0.0%
3년	1,277,280원	4,528원	0.3%
5년	2,128,800원	278,387원	13.0%
10년	4,257,600원	900,000원	11.7%

* 기준: 40세 남자, 10년 만기, 영구한 월납, 주계약만(특약비)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금액: 주계약 4,500원, (무)보철치아보장특약비(프리미엄) 2,000원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위 표지 내용은 치아임플(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철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에 한해 100% 보장합니다 (각각의 면액/계약한 약관 참조)

•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 본 상품은 10년 만기비갱신 상품으로 전 기간 월납, 주계약은 만기지급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과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전도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기약 또는 전보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 약관고부 및 설명서 불이행, 청약사에 기재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하여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지 또는 피보험자의 상태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할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금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리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급 전화하세요

080-059-9000